

전 남

FTA 개방 대비 닭 사육방식 전환

사육장 대신 모래밭에 방사

도, 스트레스 예방·면역력 강화 품질향상 나서

전남지역 닭 사육환경이 크게 개선 된다.

전남도는 FTA 개방에 대비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산란계농장의 사육방식을 동물복지 실천에 중점을 둔 방사 및 방사 형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닭의 경우 모래 목욕, 깃털 정리, 날갯짓 등 자연적인 행동이 스트레스를 막고 면역력을 강화해 질병을 예방하고 계란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남도내 닭 농가의 사육실태 조사 결과 전체 145농가에서 53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철망

(케이지) 사육은 106농가에 515만 마리, 철망없이 평지에서 사육하는 '평사 사육'은 39농가에 20만 마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닭 사육방식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 부터 2015년까지 평사 및 방사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철망 사육에서 평사 사육으로 전환하면 사육두수가 같은 경우 면적은 4~6배 늘어나 시설비 부담은 있지만 고품질 계란 생산이 가능해 높은 가격 받을 수 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철망 사육농가에 대한 복지형 친환경축산 인식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2단계로 평사 전환에 따른 시설개보수 등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및 녹색축산

육성기금 등을 통해 융자지원에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철망 사육에서 평사 사육 방식으로 전환한 농가에 대해 도 지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농장 제도를 통해 정책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 사육모델 준수, 가족이 충분히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확보, 마을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 이전, 동물복지 강화한 닭 사육방식 개선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가 의사전환 교육 및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나게 달려요” 순천만 두바퀴 발대식

순천시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이 최근 자전거 동아리인 ‘순천만 두바퀴’ 발대식을 갖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두 바퀴’의 활발한 활동으로 자전거 이용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이 최근 자전거 동아리인 ‘순천만 두바퀴’ 발대식을 갖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두 바퀴’의 활발한 활동으로 자전거 이용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전남, 전염병 위기관리 능력 높인다

오늘부터 이틀간 가상 모의훈련... 사전예방 총력

전남도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능력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신종·재출현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8~29일 이틀간 영암군 삼호읍 호텔 현대 등에서 실제 위기상황과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 신종전염병 위기관리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목도·여수검역소, 도내 신종전염병 거점별

원 관계자, 일선 시군 보건소 전염병 관리 담당자 및 역학조사요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등 4개 기관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사례발표와 국립여수검역소 등 3개 기관에서 시나리오별 위기대응조치 요령에 대한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시군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염병 훈련 매뉴얼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해 크게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대응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국가 격리병원 등 관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간방과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신종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시 위기관리 대응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응과정에서 보았듯 전염병 예방을 위해선 손씻기, 음용수 끓여 마시기, 고위험군 환자의 생식 자체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와덴해 3국 갯벌교육 워크숍

전문가 등 200명 참석 28일부터 무안·신안서

전남도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무안과 신안에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와덴해(Wadden Sea)를 끼고 있는 세 나라와 ‘한-와덴해 갯벌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와 와덴해 3국간 맺은 갯벌보전 양해각서에 따라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와

덴해 3국의 갯벌교육 전문가와 우리나라 관련 공무원, 갯벌교육 담당자 및 전문가, NGO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와 와덴해의 갯벌교육 지원정책과 무안·신안지역의 갯벌교육 추진 현황 및 와덴해 갯벌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

어진다. 한편 와덴해는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 3개국에 걸쳐 넓게 분포된 해안으로 갯벌면적이 우리나라 갯벌면적(2489km<sup>2</sup>)의 3배인 7500km<sup>2</sup>에 달한다.

3개국은 지난 1982년 와덴해 갯벌보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와덴해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현재는 ▲체육형 생태관광지구 1000만명 ▲고용효과 3만 7900명 ▲생태관광수입 연간 28~53억 유로(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여수시 동백종자 수매

10월 한달간 1kg당 5000원

여수시는 10월 한 달간 동백기를 생산을 위한 동백종자를 수매한다.

27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동백기름이 인기에 판매됨에 따라 내년에 동백기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동백종자 수매량을 전년 2000kg 보다 400kg 늘린 2400kg을 수매한다.

수매 가격은 말린 동백종자 1kg에 5000원이며, 10kg포대 단위로 포장해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매한다.

센터는 동백종자를 수매한 후 선별→건조→착유→정제과정을 거쳐 최고급 동백기름으로 생산 판매할 예정이다.

김유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백유는 식용유뿐만 아니라 리프트용, 오래된 옛 가구류 광택제, 수석광택제 등으로 널리 이용된다”며 “동백종자를 수집할 때 종자 외과피가 떨어져 색깔이 검은색을 띠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종자”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화순·함평·영광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 신문고’가 화순군(29일)·함평군(30일)·영광군(10월1일)에서 운영된다.

‘이동 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해결한다.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화순·함평·영광 지역 상담반은 농림·도로·교통·산업·환경·복지노동·건축·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1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중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송기용기자 song@

곡성군 - 전남과학대학

청년실업해소 협약체결



곡성군은 최근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과학대학(총장 조성수·왼쪽)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관·학의 긴밀한 협조 하에 희망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과 곡성 관내 구직자를 연계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남석 곡성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9년 연속 특성화 프로그램 우수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남과학대학의 전문성을 모든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여자만에서 즐기는 특별한 바다체험

내달 23~24일 여수서 ‘갯벌노을축제’

‘여수여자만 갯벌노을축제’가 10월 23~24일 이틀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장차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가을바다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연인과의 추억, 가족과의 바다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자연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여자만 노을 사진촬영대회, 소망풍선·쪽지 날리기, 여수 실버악단 공연 등 노을 문화제와 함께 ▲황금 조개를 찾아라 ▲고막·바지락 캐기 체험 ▲빨래타기 체험 ▲개매기

체험 ▲복개도에서 보물찾기 ▲갯벌·바다음식 체험 등 여자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또 여수전통놀이 수상 팀 시연, 선박 해상 퍼레이드, 풍기타 공연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진한 가을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창현 여자만 갯벌노을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여자만의 갯벌, 노을 등 자연경관과 지역의 특산물을 소재로 풍성한 체험과 진한 감동이 있는 축제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land, and commercial spaces.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복돼지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믿음 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금당 공인중개사', and '광천동 e-편한세상'.